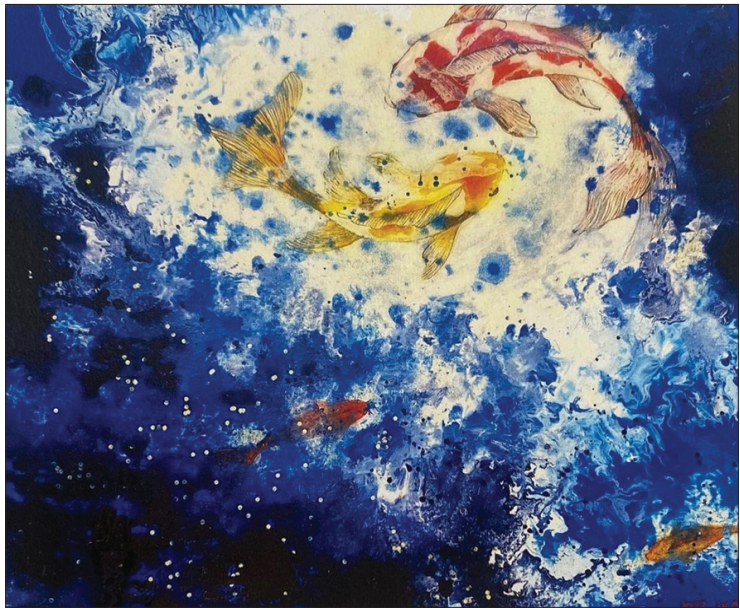


# 문채영 개인전 '일상속으로-다시'

2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2실서 6번째 개인전 개최

‘일상속으로 우린 얼마나 기다려 왔던가? 그림 속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냈던게 크나큰 행복이었던 것을 난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이번 작품속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다시 한번 일상 속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범한 그때의 기억 속으로 찾아가고 싶다. 나에게

물고기는 내 마음과 영혼을 통해 자유롭게 헤쳐 나가는 대상이다. 늘 있었던 것, 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늘 내 곁에 있던 것을 작품을 통해 소중한 일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제 다시 특별한 일상 속으로... 작가 문채영씨의 6번째 개인전인 '일상속



문채영 작가 전시회 대표작 '내 속삭임'

으로-다시'가 지난 23일부터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열리고 있다. 5번째 개인전을 연 지 4년 만이다.

움직이는 물고기들을 주제로 그린 '내 속삭임'은 이번 전시회의 대표작이다.

문 작가는, 사춘기 시절 부친이 양어장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태풍과 호우로 인해 댐이 무너지고 그간 키워왔던 물고기들이 죽어버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각인되어 왔다고 한다.

지금 그에게 물고기는 단순한 대상이나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서 자신의 예술공간을 열어주는 매개체로, 답답한 일상과 기계적인 삶의 구조를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창조 공간을 열어주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그런 그에게 물고기는 무한한 매력이라고 한다.

출렁이고 반짝이는 물에 자신의 감흥과 정감의 파장으로 번지는 것, 그에게 물고기는 오직 눈에 비쳐지는 시각적인 대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게 물 속을 이리저리 헤엄쳐 나가는 대상이라는 것.

마치 삶의 체형 속에서 감성의 속성이 성숙해 가듯, 물에 비친 물고기의 모습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시키는 원천이라 말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는 움직이는 물고기들처럼 다시 한번 일상 속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범했던 그때의 기억속으로 찾아가고 싶다는 의지로 작품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전시회가 소중한 일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채영 작가는 1977년생으로,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했다.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열린다. /김재훈 기자



학교법인 우석학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국 문화예술 유관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12월 15일 전당을 방문해 시설 견학을 하고 있는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안내를 하고 있는 전당 직원들)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벤치마킹 '각광'

올해 3개 기관서 전당 방문 시설 견학·운영 노하우 등 자문

학교법인 우석학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국 문화예술 유관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전당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청과 인천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전당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노하우 등을 자문했다.

충남도청의 경우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을 위한 선진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전당을 찾았고, 아외공연장 건립을 계획 중인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문화재단과 경기도 하남시 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도 12월 9일과 15일 잇따라 전당 공연장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 및 문화예술 유관기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당의 시설 및 규모, 운영방식 등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진사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9월 21일 개관 당시 서울 예술의전당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복

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건립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대지면적 99,617㎡, 연면적 36,07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37석의 모악당, 666석의 연지홀, 206석의 명인홀 등 3개의 실내공연장과 7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이 있다.

또한 총 면적 1,818㎡의 전시장(4개)과 25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있으며, 야외 놀이마당과 200석 규모의 연회장 등 부대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9월 전국 250여 개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최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예회관상 부문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당은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거장들의 무대와 대향공연,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문화소의 지역 순회공연 등을 포함해 매년 70여 개의 다채로운 기획사업을 진행하며 전북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 '헬로 모던' 군산의 근대를 영화로 들여다본다

군산대 인문학창고 정담 프로그램 '정담시네마: 영화속의 모던을 찾아서'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인문학창고 정담 프로그램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담시네마: 영화속의 모던을 찾아서'로 시민 결을 찾는다.

군산시는 '헬로 모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군산의 근대를 문화 관광의 핵심 주제로 활용해왔다.

이번 정담 시네마는 영화를 통해서 근대의 의미를 살펴보고 군산의 근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담시네마는 오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7시에 군산세관의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총 12회 열린다. 정담시네마 프로그램은 금강역사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인디리인의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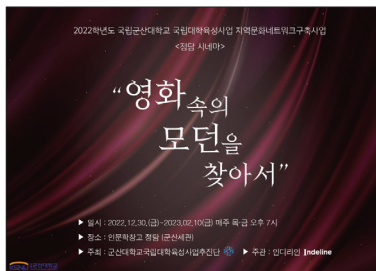
대현 감독이 기획했다.

정담시네마는 '군산의 영화이야기'를 쓴 장병수 박사를 시작으로 유명 영화평론가와 건축가, 감독 등이 강사로 나선다.

또 전양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최낙용 전국 예술영화관협회장 등도 근대의 의미를 영화제와 영화관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1월 5일 '클래식 인 시네마'는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성악곡과 뮤지컬 영화 속 노래를 통해서 시민에게 친숙한 클래식 공연과 성악이 되도록 꾸밀 예정이다.

군산의 근대를 함께 한 군산세관 창고는 2017년부터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코로나 사



태가 발발하기 전까지 군산대 인문학협력센터와 군산문화협동조합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과 연주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정담 세미나'를 시작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학창고 정담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문 기자

## 민성욱·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 "고유성 살릴 것"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민성욱·정준호 신임 집행위원장 위촉식을 열었다.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들 공동 집행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내 독립예술영화계의 교두보이자 전주시의 대표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성욱 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가 국내외 영화계에서 대표성을 갖는 행사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며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영화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징성은 재고의 여지 없이 소중한 가치이고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쌓아온 성과가 진일보하게 되고, 영화제 고유의 정체성을 잘 살려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사회 의결이 있던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간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릴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